



[산업동향] 금년 낙농 트렌드 Top 5 - 美 전문지 발표

- 대체식품 성장, 중국 수요 강세, 소비 증가, 신기술 도입 등

미국의 낙농 전문지 Dairy Herd가 코로나19가 시작된지 1년을 맞이해 금년 낙농산업에 영향을 미칠 트렌드 5가지를 발표했다.

첫째, 우유 대체식품 성장.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콩, 아몬드, 귀리 등 식물기반 대체 식품들이 잇따라 출시되었다. 새해맞이 채식을 다짐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며 금년에도 대체식품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둘째, 중국의 유제품 수요 강세. 최근 농무부(USD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중국내 유제품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유제품 수입도 꾸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계속해서 세계 유제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증가.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조치로 대부분 국가의 유제품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에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넷째, 기후변화 논쟁.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파리기후협약에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기후변화와 농업의 온실가스배출 문제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신기술 도입. 최근 로봇 착유기 등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으로 낙농업의 효율성은 물론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일손부족 등 농가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출처 : dairyherd.com, 1월 25일자>

[IDF 동향] IDF, 상반기 웨비나 개최 계획 회원국에 알려와

- 제8회 IDF 요네병 포럼, 치즈과학기술 심포지엄 등 6건

코로나 19 장기화로 대면회의 및 행사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IDF(국제낙농연맹)는 금년에도 각종 세미나를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로 대체해 개최할 계획임을 회원국에 알려왔다. 한편, 2년마다 개최되는 IDF 요네병 포럼은 오는 6월 12-16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되는 요네병 학회에 앞서 화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치즈과학기술 심포지엄은 최초로 온라인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IDF 웨비나는 회원국 관계자와 참여를 희망하는 업계관계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IDF Korea, 044-330-2072로 문의). <출처 : 국제낙농연맹(IDF)>

< 2021년 IDF 웨비나 개최 계획 >

일시(한국시간)	웨비나명	주요내용	담당분과
21.2.18(목) 21:00-22:00	낙농가 원탁회의	세계 각국 낙농업의 직면과제 논의 및 코로나19 이후 미래 낙농업에 대한 통찰력 공유	목장경영
21.2.24(수) 23:00-24:30	국제가축기록위원회(ICAR)/IDF 공동세미나 - 동물복지	동물복지 관련 최근 이슈 및 산업관계자간 견해 공유	동물건강복지
21.3.25(목) 20:00-21:30	송아지의 출생에서 이유기까지의 관리 방법	동물건강복지 측면에서 송아지의 출생에서 이유기까지의 다양한 관리방법 공유	동물건강복지
21.5.26(수) 22:00-01:00	제8회 IDF 요네병 포럼	지역 또는 국가 차원의 요네병 관리 방법 공유 및 현행 관리 방법에 대한 논의 진행	동물건강복지
21.6.7~11 *유료행사	IDF 치즈과학기술 심포지엄	치즈과학기술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 공유 및 논의	낙농과학기술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